

혁신도시 문화시설 공동 이용 '길 텃다'

전주시·완주군, 문화체육 향유 협약 체결... 거주지 행정구역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전북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문화와 체육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11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시장과 박성일 군수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주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체육 향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주시와 완주군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문화체육 향유, 지역

문화 발전 등을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혁신도시 주민들은 앞으로 건립되는 이서 공공도서관과 전주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을 거주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련사진 10면>

그간 동일 생활권에서 거주하는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은 혁신도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안전로를 중심으로 2개 행정구역으로 구분돼 있어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이울러 이번 협약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은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시·군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으로 인한 추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 군수는 "완주군은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서비스 욕구에 맞춰 역점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역시 "완주군과의 상생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주민들이 완주군 도서관과 전주시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상호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양 시군이 하나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완주군과 협력관계를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시간선제 도입, 60년 만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양 시군을 잇는 완주 하리교 재가설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는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완주=이종복 기자

길 잃은 다섯살 꼬마 경찰 도움으로 부모 품에

지문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돼 완산경찰서, 안전하게 인계

길을 잃은 5세 여아가 경찰 도움으로 안전하게 부모의 품에 다시 안겼다.

11일 전주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7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편의점 앞에서 A(여·5)살 이 길을 잃은 채 혼자 울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은 내복 차림으로 추위에 떨며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더구나 울기만 할 뿐 집이 어딘지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아이는 지문사전등록 시스템에 등록이 된 상태였고, 지문과 얼굴매칭을 통해 40분 만에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A양의 부모는 새벽에 둘째 아이가 갑자기 아프자 잠든 A양을 두고 집을 나섰고, 자다가 깬 A양은 엄마를 찾겠다고 집을 나왔었다.

양촌원 평화파출소장은 "아이가 아무 사고없이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다"며 "지문사전등록시스템을 알려 실종 아동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문사전등록시스템은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지문과 얼굴사진을 경찰에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를 찾아주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김민근 기자



익산시 민간 환경 감시단이 11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나서고자 감시단을 결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 나설 것"

'익산 민간환경 감시단' 출범

익산지역 환경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민간 환경감시단'이 출범했다.

11일 익산시 민간 환경 감시단은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나서고자 감시단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시단은 현재 익산시 13개 읍·면·동지역에 환경감시단을 건설했고 개별 회원을 포함해 423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환경피해는 방지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자 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일부 업체

들은 불법·탈법 행위를 동원해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감시단 결성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감시단은 앞으로 대기, 수질, 토양, 악취 등의 영역에서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울러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환경 문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고도육성 등 문화 관광 산업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BCG 피내용 예방접종 사전예약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오는 17일부터 BCG(결핵) 피내용 예방접종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접종일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화요일 오전 완산점종실, 수요일 오전 평화보건지소, 목·금요일 오전 덕진점종실 등 주 5일 실시된다.

보건소는 또, 사전예약제에 대한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시 콜센터(063-222-1000)와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 협조 요청해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고위험 산모·신생아 위한 통합치료센터 개소·운영

전북대병원, 호남 최초로

전북대학교병원이 호남권역 최초로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1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문을 여는 통합치료센터는 고령(35세 이상) 산모 증가로 고위험 산모 및 저체중아, 미숙아는 늘고 있지만 운영상 이유로 기피되고 있는 중증 질환 산모와 신생아 등을 지역에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신생아의 분만과 입원율이 3배 이상 증가하고, 1500g 미만의 극소저체중아의 생존율도 82%까지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린이병원 3층에 문을 여는 통합치료센터는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및 수술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분만실 등을 갖췄다.

또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 전문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 의료서비스 강화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의 안전한 출산과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이로써 임신과 출산, 전과정에 걸쳐 중증질환 질환을 가진 산모와



신생아들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5년 9월 호남권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선정돼 1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문을 열게 됐다.

그간 전북대병원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 등 신생아 생존율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

센터장을 맡은 산부인과 정영주 교수는 "이번 통합치료센터 지정을 통해 보다 개선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타지역 병원에서 치료 받는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병원들과 함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형수 사랑해~" ... 이웃집 할머니 추행한 7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정운현 판사는 11일 술에 취해 이웃집에 사는 노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씨(7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6일 8시 30분께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파 A씨(82, 여)의 집에서 "형수 사랑해, 나 여기서 자고 간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허박

지를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A씨의 집을 찾아가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A씨에 대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나이를 속여?" ... 중학생 구타 대학생 등 6명 입건

전북 고창경찰서는 11일 어린 중학생을 단체 폭행한 대학생 장모씨(22)와 고등학생 김모군(1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7일 오후 8시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등산로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중학생 A군(14)을 집단 폭행해 전치 4주

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A군이 나이를 속이고 거짓말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번 폭행사건 말고도 수차례 A군을 때린 혐의도 있다"면서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분묘개장공고

1. 분묘 위치: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산211-1
2. 분묘기수: 5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소유권보존)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신고 후 개장
5. 개장 장소: 전북 남원시 솔터길40-36(남원승화당)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10일
7. 안치기간: 10년
8. 신고처: 유)춘향골장례식장 라병권(010-9356-4141)
9. 기타: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같음

2017년 4월 12일
공고인 임현빈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